

李煜詞研究

李 鴻 鎮

目 次	
I. 서 론	III. 李煜의 詞
II. 李煜 傳略	IV. 결 론

I. 서 론

10세기 전반기는 중국 역사상 또 한 차례의 대분열의 국면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5대 10國」 시대이다.

「5대」는 後梁・後唐・後晉・後漢・後周의 다섯 왕조이다. 그 가운데 후량 朱氏와 후주 郭氏를 제외하면 후당 李氏・후진 石氏・후한 劉氏는 모두 漢族이 아니다. 반란 봉기자인 朱全忠에서부터 그들은 唐帝國의 통치정권이 붕괴한 이후 서로 이어서 북중국을 53년 동안 통치하였다. 이 53년 가운데 그들은 늘 대혼전을 전개하여 곳곳에서 약탈과 살륙을 일삼았고 북중국 전체를 전쟁과 죽음의 분위기로 뒤덮어 농업과 상공업은 모두 참혹한 파괴를 맞보았다.

이 때 남방에 할거했던 9국(吳・吳越・前蜀・楚・閩・南漢・荆南・後蜀・南唐: 沙陀人 劉旻이 太原에 건립한 北漢을 더하여 「10國」임)은 모두 漢人들이 세운 국가로서 서북방의 각 부족의 침략을 받지 않았고 여러 나라 사이에 전쟁도 또한 적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활도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계속 생산력을 높일 수 있었다. 특히 西蜀과 南唐의 두 나라는 關中 일대와 中原 일대의 피난민들을 흡수하여 노동력을 끊임없이 증가시켰고 당시의 통치자들도 또한 생산을 적극 장려하고 농업에 힘쓰고 水利를 일으키는 등이 두 나라의 생산력은 더욱 발전하여 경제계 번영하여 당시 경제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西蜀과 南唐은 당시 경제의 중심적인 기억이었으므로 詞人들의 창작도 이 두 나라에 집중되었다.

西蜀의 사는 趙崇祚가 엮은 文人詞集인 《花間集》(사집 가운데의 작자는 溫庭筠(812?~870?)과 皇甫松을 제외한 16인의 거의 전부가 서촉 사람이거나 혹은 서촉에 거주한 사람들임)에 보이고 있다. 남당 사의 사집으로서 현존하는 것은 단지 馮延巳(903~960)의 《陽春集》과 李璟・李煜 父子의 《南唐二主詞》뿐이다. 李璟의 사는 단지 4수 뿐이므로 그

가운데 절대다수는 李煜의 사이다.⁽¹⁾

II. 李煜 傳略

南唐 後主 李煜(937~978)은 初名이 從嘉, 字는 重光, 號는 鍾隱·鍾山隱士·鍾峰隱居·鍾峰隱者·鍾峰白蓮居士·鍾峰居士 등이 있다. 그는 中主 李璟(916~961)의 여섯째 아들이다.

그는 天資가 聰穎하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 「《六經》을 정밀하게 연구하고 百氏를 두루 종합하였고」⁽²⁾ 또한 佛敎도 좋아하였다. 文章·詩·詞에 모두 정통하였고 또 음률에 통달하여 雅鄭을 정묘하게 감별하였으며⁽³⁾ 書·畵에도 뛰어났고 더욱 감상에 뛰어났다.⁽⁴⁾ 한 마디로 천재적인 문학가·예술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8세(954)에 侍中 周宗의 딸 娥皇(곧 昭惠后로 大周后라고도 함)과 결혼하였다. 大周后는 용모가 뛰어난데다 書史에도 통달하고 음률에도 뛰어났으며 겸하여 노래와 춤에도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 부부간의 情誼는 매우 두터웠다. 그가 28세(964)때에 大周后가 죽자 後主는 친히 詩文을 지어 그녀의 용모·태도·재능과 두 사람 사이의 애정 생활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는데, 그 밖에도 그의 많은 詩들은 모두 大周后를 위하여 지은 것이다.⁽⁵⁾ 그녀가 29세로 죽은 후 3년이 지나자 그녀의 동생을 맞아 황후로 맞았는데 小周后라고 한다. 사실은 小周后는 언니가 병중에 있었을 때 이미 입궁하여 후주와 통하였는데, 후주의 사 가운데 〈菩薩蠻〉 3수는 후인들의 고증에 의하면 이 小周后를 위하여 지은 것이라고 한다.⁽⁶⁾

後主는 小國의 황제로서 호사스러운 궁정 생활을 보냈지만, 그는 집안 사람들이나 처자·형제들에 대해서는 정감이 두텁고 진지하였다. 그는 그의 아들 仲宣의 夭折에 대하여 挽辭와 悼詩를 짓고 스스로 홀아비라고 일컬었고, 大周后의 죽음을 애도한 長文의 〈大周后誄〉를 지은 것 외에도, 그의 8弟 從益이 宣州에 出鎮할 때에는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綺霞閣에서 전송하기도 하였고, 그의 7弟 從善이 宋에 朝謁하다가 宋太祖(趙匡胤)에게 汴京에 억류당하자 그는 上表하여 從善의 귀국을 청원하였는데 태조가 허락하지 않자 그는 매우 전될 수가 없어서 四時의 연회를 罷하고 아울러 〈却登高文〉을 지어 자신의 심정을 절절하게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감정이 깊고 두려운 사람이 아니면 지어낼 수 없는 것이었다. 또 그는 이 시기에 수많은 이별을 슬퍼하는 小詞를 짓기

1) 詹安泰, 〈李煜和他的詞〉, 《宋詞散論》(廣州: 廣東人民出版社, 1982), pp.144~5.

2) 徐鉉, 〈大宋左千牛衛上將軍追封吳王臨西公墓誌銘〉, 《騎省集》 권 29에 보인다.

3) 陸游, 《南唐書》 권 18 〈浮屠傳〉, 《江南餘載》 下 등에 보인다.

4) 夏承燾, 〈南唐二主年譜〉(《唐宋詞人年譜》(北京: 中華書局, 1958)에 상세한 고증이 있다.

5) 馬令, 《南唐書》 권 6 〈女憲傳·昭惠周后〉.

6) 馬令, 《南唐書》 권 6 〈女憲傳·繼室周后〉에는 “花明月暗籠輕霧”를 지적하였고, 《古今詞話》에는 다시 “銅簧韻脆鏘寒竹”을 지적하였으며, 夏承燾의 〈南唐二主年譜〉는 “蓬萊院閉天台女”도 또한 小周后를 위하여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도 했는데 이러한 예는 과거의 황제들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961년(宋 建隆 2년, 25세) 2월에 中主 李璟은 국세가 날로 쇠약해지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자신은 豫章(지금의 湖南 長沙)으로 옮기고 李煜을 太子로 冊立하여 金陵(지금의 江蘇 南京市)에서 監國케 하였다. 이해 6월 中主가 세상을 떠나자 7월 부친의 업을 계승하여 金陵에서 嗣位하였다. 이 때 이름을 煜이라고 개명한 것이다.

당시 남당은 이미 송의 附庸國으로서 그가 즉위한 후에도 송 조정에 대한 책략이란 주로 「卑躬折節」하여 珠玉·金帛 등의 貢物(집지어는 1년 동안에 3차례나 進貢한 적도 있음)⁷⁾을 가지고 宋帝의 환심을 사는 것 뿐이었다.

《宋史》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煜은 매번(송의)조정에서 군대를 내어 이기든가 경하할 만한 일을 들을 때마다 반드시 사신을 보내어 군대를 먹이고 공물을 바쳤다. 그 큰 慶節에는 더욱 연회를 산다는 명목으로 별도로 珍玩을 받들었다. 吉·凶의 大禮에는 모두 별도로 공물을 바쳤다.」⁸⁾

이것은 당시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宋太祖가 필요로 하는 것은 江南의 肥沃한 토지였으니 아무리 해도 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마침내 974년(宋太祖 開寶 7년) 閏 10월에는 군대를 파견하여 長江을 건너 金陵에 이르렀다. 이듬해 겨울(11월)에 송의 曹彬이 이끄는 大軍이 공격을 퍼부어 金陵을 함락하자 後主는 近臣 殷崇義 등을 이루고 肉袒하여 항복하였다. 그는 그의 처자·권속과 근신등 45인과 포로가 되어 汴京으로 끌려 갔다. 이듬해 正月 변경에 도착하여 白衣紗帽로 明德樓 아래에 待罪하니 宋太祖는 그를 左千牛衛上將軍 違命侯에 封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國主의 신분에서 영락한 포로생활을 보내게 된다.

976년 10월(太平興國 元年) 太宗(趙匡義)이 즉위하자 11월 비로소 違命侯라는 치욕적인 封號를 제거하고 그를 隴西郡公으로 進封하였다.

978년(太平興國 3년) 7월 7일에 죽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後主가 42세 생일이 되던 날에 太宗이 그의 아우 趙廷美를 보내어 축하 선물로 보낸 술을 마시고 발작을 일으켜 죽었는데 그 속에는 牽機藥이라는 독약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太宗은 그에게 太師를 追贈하고 吳王에 封하여 10월에는 王의 禮로써 洛陽의 北邙山에 묻었다. 小周后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그와 合葬했다고 한다.

後主의 저서에는 《文集》 30권과 《雜說》 100篇이 있었다고 하지만⁹⁾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문장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위에 언급한 〈大周后誥〉·〈却登高文〉 외에 몇 편이 있다.¹⁰⁾ 그의 詩 18수와 斷句 32句가 《全唐詩》에 現存한다.¹¹⁾ 이 가운데 가장 널

7) 《十國春秋》권 17에 보인다.

8) 「煜每聞朝廷出師克捷及嘉慶之事，必遣使犒師修貢，其大慶節更以買宴爲名，別奉珍玩爲獻，吉凶大禮，皆別修貢。」

9) 徐鉉，〈墓志銘〉。

10) 詹安泰의 고증에 의하면, 그 밖에 〈送鄧王二十六弟牧宣城序〉·〈上宋太宗乞潘慎修掌記室手表〉·

리 유행되고 영향이 가장 큰 것은 물론 그의 詞이다. 後主 詞의 專集은 南宋尤袤(1127~94)의 《遂初堂書目·樂曲類》에 최초로 보이는데 그것이 徐鉉(917~992)이 後主의 墓志銘에서 말한 「文集三十卷」 속에 있었던 것인지는 이미 알 수 없다. 그와 그의 부친의 詞를 合編한 《南唐二主詞》는 南宋 陳振孫의 《直齋書錄解題》 권21에 처음으로 보인다. 王國維(1877~1927)가 校補한 南詞本 《南唐二主詞跋尾》에는 南詞本 《南唐二主詞》가 곧 《直齋書錄解題》에 저록되고 宋 長沙書肆에서 간행한 책이라고 인정하였다. 우리는 이 詞集에서 後主詞의 眞面目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의 사람됨에 관해서는 宋 葉夢得(1077~1148)의 《石林燕語》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江南 李煜이 이미 항복하자 太祖는 일찍이 曲宴에서 물었다. “듣건대 卿은 나라에 있을 때 시를 짓기 좋아하였다고 한다”하고 그에게 得意作 一聯을 들게 하였다. 이윽은 오랫동안 나지막하게 읊조리다가 그의 〈詠扇〉을 읊었다. “搗讓하니 달은 손에 있고, 흔들려 움직이니 바람이 풀에 가득차네”……다른 날 다시 이윽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을 때 군신들을 돌아보며, “훌륭한 翰林學士”라고 하였다.」⁽¹²⁾

「好一箇翰林學士」라는 말은 後主에 대해서라던 가장 적확하고도 적절한 평어일 것이다.

이러한 인물은 대부분의 경우 실제의 인간생활과는 유리되어 국가의 안위까지도 그리 중대시하지 않는다. 그들의 정신 속에 충만해 있는 것은 오로지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感傷과 空想 뿐이다. 그러므로 後主는 국가가 멸망하여 「황망히 묘당에 하직을 고할」(倉皇辭廟)(〈破陣子〉)⁽¹³⁾ 때에도 그는 오히려 궁녀들을 마주보며 눈물만 뿌렸던 것이다. 그의 상상력은 극히 감성적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라면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는 사소한 일에 속하는 꽃이 떨어지고 새가 울며 술자리가 끝나고 사람이 흩어지는 경우에도 그는 울적한 심사를 가누지 못하고 치량한 탄식을 내뱉게 되는 것이다.

〈烏夜啼〉(일명 〈相見歡〉)⁽¹⁴⁾

「숲의 꽃은 봄의 붉은 꽃이 다 시드는데, 너무나도 바쁘구나. 어쩔 수 없네, 아침의 차가운 비, 저녁의 바람을!」	(林花謝了春紅, 太匆匆. 無奈朝來寒雨, 晚來風.)
---	--------------------------------------

〈阮郎歸〉⁽¹⁵⁾

「낙화는 어지럽고 술은 거나한데,	(落花狼藉酒闌珊,
--------------------	-----------

〔即位上宋太祖表〕・〔乞緩師表〕・〔書述〕・〔書評〕・〔南唐金銅蟾蜍硯滴銘〕・〔答張泌諫手批〕・〔遺吳越王書〕・〔批韓熙載奏〕가 있다고 한다. 앞의 책, p. 151.

11) 주 10)과 같음.

12) 「江南李煜既降, 太祖嘗因曲宴問, “聞卿在國中好作詩”因使舉得意者一聯. 煜沈吟久之, 誦其〈詠扇〉云: “搗讓月在手, 動搖風滿懷”……他日復宴後主, 顧近臣曰: “好一箇翰林學士!”」

13) 唐圭璋, 《南唐二主詞彙箋》(臺北: 正中書局, 1976) p. 21 앞.

14) 唐圭璋, 《南唐二主詞彙箋》p. 11 뒤.

15) 唐圭璋, 《南唐二主詞彙箋》p. 16 뒤.

생황 불고 노래 하네. 취하고 꿈꾸는 동안에」 笙歌醉夢間.)

이와 같은 인물은 천부적인 문학인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明 胡震亨의 《唐音癸籤》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李煜은 어려서부터 聰慧하고 글을 잘 지었다. 오직 책모으기를 좋아하여 궁중에는 그림과 책이 가득하였는데 鍾繇·王羲之의 墨跡이 더욱 많았다. 內苑에 澄心堂을 두고 문사들을 맞아 들어 그 속에 거처케 하였다. 《雜說》 100편을 지으니 당시 사람들은 (曹丕의) 《典論》을 이을 만하다고 하였다. 글씨와 그림에도 겸하여 뛰어나고 또 음률에도 정묘하였다.」¹⁶⁾

宋 蔡絛(?~1126)의 《西清詩話》에는 또 그가 金陵이 宋軍에 포위되어 공격을 받을 때 詞句의 推敲에만 열중하고 있었다는 전설(물론 이것은 전설일 뿐이다)을 신고 있다.

「南唐 後主는 성이 포위된 동안에도 <臨江仙>을 짓고 있었는데 詞가 미처 완성되기도 전에 성이 파괴되었다. 일찍이 남은 원고를 본 적이 있는데, 點畫이 번져서 애매하니 다음이 한창 위태롭고 군색하여 글씨에 마음이 없었을 것이다. 太祖는 “이옥이 만약 시를 짓는 노력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면 어떻게 나의 포로가 되었겠는가?”라고 하였다.」¹⁷⁾

이와 같은 인물은 또한 대부분 심약하고 어리석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宋의 대군이 浮橋를 만들어 長江을 건널 때, 누가 그에게 「예로부터 장강에 다리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알리자 그도 다만 「나 역시 어린애의 장난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을 뿐이었다. 그 후 송군이 이미 장강을 건넜는데도 그는 털끝만큼도 알아채지 못하였고, 城樓에 올라 旌旗가 들판에 가득한 것을 보기만했어도 송군이 城下에 이르렀음을 알았건만 심지어 완전히 포위당하여 內外가 단절되고 온 성이 온통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도 그는 淨居室에 幸行하여 沙門 德明·雲眞·義倫·崇節 등의 《楞嚴圓覺經》의 講說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다. 가령 그러한 현실을 직접 목도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도피하려고 했을 뿐 감히 정면 대결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또 《五代史》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李煜은 항상 怏怏하여 나라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날마다 여러 신하들과 술잔치를 벌이고 기쁨에 겨워 슬피 노래하여 다지 않았다.」¹⁸⁾

바로 그러했다. 술과 詩는 바로 그가 인생의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었던 유토피아였다. 불행하게도 그는 현실에 사로잡히게 되자 오직 탄식만 할 뿐이었다.

「인생의 시름과 한을 어떻게 면할 것인가?」(人生愁恨何能免) (<子夜歌>)¹⁹⁾

16) 「煜少聰慧, 善屬文. 惟好聚書, 宮中圖書充牣, 鍾王墨跡尤多. 置澄心堂於內苑, 延文士居其間. …著《雜說》百篇, 時人以爲可繼《典論》. 兼善書畫, 又妙於音律.」

17) 「南唐後主在圍城中作長短句, 未就而城破……余嘗見殘稿, 點染晦昧, 心方危窘, 不在書耳. 藝祖曰: “李煜若以作詩工夫治國事, 豈爲吾虜也.”」(胡仔의 《荅溪漁隱叢話前集》 권 59에 인용).

18) 「煜常怏怏以國蹙爲憂, 日與群臣酣宴, 愁思悲憤不已.」

19) 唐圭璋, 《南唐二主詞集箋》 p. 74.

「 스스로 인생의 긴긴 한은, 물은 늘 동쪽으로 흐르는 것을.」(自是人生愁恨・水長東) (〈烏夜啼〉)⁽²⁰⁾

이와 같이 才華가 뛰어나고 환상만을 꿈꾸는 싹약한 사람에게 「날마다 100리씩 줄어드는」(日蹙百里)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으니 亡國을 자초한 것도 또한 당연한 일이었다.

「남조의 천자들은 대부분 복이 없으니, (南朝天子多無福,
詞臣이 되지 않고 제왕이 되었다네.」 不作詞臣作帝王.)

南朝의 陳後主(叔寶: 553~604)나 李煜 같은 인물들은 모두 「뛰어난 한림 학사」였던 것이다.

後主의 일생은 호화스럽고도 처량한 한 바탕의 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衰艷한 1수의 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後主에게는 「작은 누각에 불기를 다하니 옥생황이 차갑네」(小樓吹徹玉笙寒)⁽²¹⁾ (〈攤破浣溪沙〉)라고 읊은 부친 李璟과 〈薔薇詩〉와 〈觀棋〉詩를 지은 두 동생(韓王 從善과 吉王 從諱의 2시는 《全唐詩》권 8에 보임)이 있었고, 大周后과 小周后는 모두 용모가 뛰어나고 총명하였다. 그러므로 초기의 그의 궁정생활은 정신적으로 매우 쾌적하였고 물질적으로도 호화를 다하여 부족함이 없었다. 그의 이와 같은 호화스러운 생활은 후인의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宋 陶穀의 《清異錄》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李煜 長秋 周氏는 柔儀殿에 거처하였는데 쉼을 맡은 궁녀가 있었다. 향을 사르는 그릇은 把子蓮・三雲鳳・折腰獅子・小三神・卍字金・鳳口罌・玉太古・容華鼎 모두 수십 가지였고 황금과 옥으로 만들었다.」⁽²²⁾

《五國故事》卷上에는 말하였다.

「일찍이 궁중에 銷金・紅羅로 벽에 휘장을 치고 白金의 못과 瑤瑁로 둘러놓았다. 또 푸른 자개를 벽거울에 박고 紅羅를 발랐으며 그 바깥에는 梅花를 심었다. 또 꽃밭에 비단을 치고 그림을 그린 작은 나무 정자를 두었는데 겨우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다. 이옥은 愛姬 周氏와 그 속에서 다주하고 술을 들었는데 이와 같은 것이 몇 곳이나 되었다.」⁽²³⁾

이와 같은 것은 後主 자신의 〈浣溪沙〉詞에 克明하게 나타나 있다.⁽²⁴⁾

「붉은 해는 이미 3길이나 높고 햇빛이 (紅日已高三丈透,
스며들어왔는데, 金釧次第添香獸.
황금 향르엔 차례대로 향을 더하네.

20) 唐圭璋, 《南唐二主詞彙箋》 p.11뒤.

21) 唐圭璋, 《南唐二主詞彙箋》 p.2뒤.

22) 「李煜僞長秋周氏居柔儀殿, 有主香宮女. 其焚香之器曰: 把子蓮・三雲鳳・折腰獅子・小三神・卍字金・鳳口罌・玉太古・容華鼎, 凡數十種, 金玉爲之.」(《說郭》권 61에 인용됨).

23) 「嘗於宮中製銷金紅羅幕其壁, 而以白金釘瑤瑁押之, 又以綠銅刷隔眼, 糊以紅經, 種梅花於其外. 又於花間設絳繡小木亭子, 纔容二人. 煜與愛姬周氏對酌於其中, 如是數處.」

24) 唐圭璋, 《南唐二主詞彙箋》 p.13뒤.

붉은 비단 카펫은 발걸음을 옮길 紅錦地衣隨步蹴。
때마다 주름이 진다베.
아름다운 여인은 춤추면서 금니를 잡 佳人舞點金釵溜,
아 떨어뜨리고,
술에 취하여 때때로 꽃술을 파서 빔 酒惡時拈花蕊嗅,
새를 달는데,
別殿에선 아득히 등소소리·북소리 別殿遙聞簫鼓奏)
가 들려오네.]

그러나 이와 같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극도로 화사한 생활도 後主가 중년에 이르자 큰 변화를 맞게 된다.

964년(乾德 2년) 大周后가 죽은 것이다. 後主의 그녀에 대한 애정은 지극히 깊었고 더욱 周后가 죽게 된 원인이 바로 그녀의 죽은 아들 仲宣에 대한 애통함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를 한꺼번에 잃고 애통하였다. 小周后는 본래부터 그가 이미 사랑하고 있었지만 이 세상사를 모르는 귀엽기만 한 소녀가 그의 마음의 공허함을 메워줄 수는 없었다. 그의 당시의 심정은 〈病中感懷〉²⁵⁾ 시에 잘 나타나 있다.

「조췌함이 몇 년째 심하여, (顚顚年來甚,
쓸쓸히 더욱 스스로 가슴아드네. 蕭條益自傷.
바람의 기세는 병든 뼈에 사두치고, 風威侵病骨,
빗기운은 시름하는 창자를 데이게 하네. 雨氣咽愁腸.
밤이면 솔에 오직 약을 달일 뿐이고, 夜鼎唯煎藥,
아침이면 구레나룻이 반이나 서리에 朝髭半染霜.
물드네.
옛 인연은 결국 무엇이던가? 前緣竟何似?
누구와 더불어 空王에게 물을 것인가?」 誰與問空王.)

《全唐詩》에 인용된 그의 斷句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²⁶⁾

「쇠퇴한 얼굴 한번 병이 들자 회복이 어려운데, (衰顏一病難牽復,
새벽 궁전에 님이 오시니 자못 스스로 曉殿君臨頗自羞.)
부끄럽네.]

당시의 그는 周后가 쓰던 수건이나 타던 琵琶라도 그의 悲哀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였고 나아가서는 하찮은 한 포기의 들·한 그루의 나무라도 언제나 그를 追憶과 感懷에 젖게 하였다. 다음과 같은 그의 시가 있다.²⁷⁾

「누가 알았으리 꽃의 앞·뒤에, 誰料花前後,
고운 님 도리어 온전치 못할 줄을.» 蛾眉却不全)

——〈梅花〉——

25) 《全唐詩》，권 8(北京：中華書局，1985)，제1책，p.74.

26) 위의 책，p.75

27) 위의 책，p.73.

「또 오동 꽃이 옛 가지에 핀 것을 보니, (又見桐花發舊枝,
은 누대에 내와 비가 끼고 날저물어 一樓烟雨暮淒淒.
쏟아하네.
난간에 기대어 슬퍼함을 누가 알 것 凭闌惆悵人誰會,
인가?
저도 모르게 눈물고인 눈을 不覺潸然淚眼低.)
떨구네.」

—〈感懷〉—

975년(開寶 8년)은 後主에게 더욱 커다란 불행을 가져다 주었다. 이 해 겨울 金陵이 함락되어 볼모가 되어 汴京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다.

汴京에 도착한 후 그들은 白衣紗帽로 처분만을 기다린다. 宋主는 그들에게 死刑은 가하지 않고 冠帶・器幣・鞍馬 등을 내려주고 갖가지의 官爵을 봉했다. 그러나 코로생활이란 결국 인간으로서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宋史・世家》(권 478)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太宗이 일찍이 崇文院에 가서 책을 보았는데 李煜과 劉鋹를 불러 그들에게 마음대로 보게 하였다. 이윽고 “卿이 강남에 있을 때 책읽기를 좋아하였다고 들었는데, 이 簡策은 대부분이 경의 옛 물건이오. 歸朝한 후 좀 책을 읽었오?”라고 하자 이윽은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하였다.」⁽²⁸⁾

宋 王銍(1126경)의 《默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小周后는 歲時에 의례 命婦들을 따라 입궁하여 뵈었고 매번 들어갈 때마다 반드시 며칠동안 大內에 묵었다. 나와서 後主를 대하자 마자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며 옥설을 퍼부었는데 後主는 항상 그것을 피하였다.」⁽²⁹⁾

또 《宋史・世家》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도 있다.

「太平興國 3년(977) 李煜이 스스로 자신이 가난함을 말하였다.」⁽³⁰⁾

위의 세 가지의 기록에서 우리는 後主가 宋에 歸順한 이후에 겪었던 정신적・물질적인 고통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그가 머리 속에서 동경했던 것은 오직 과거의 추억과 죽음의 유혹뿐이요, 그가 고통을 잊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란 겨우 눈물과 悲吟과 痛飲 뿐이었다. 그의 〈與故宮人書〉에는 다음과 같은 沈痛한 말이 들어 있다.

「요즈음은 낮이나 밤이나 다만 눈물로 얼굴을 씻을 뿐이다.」⁽³¹⁾

28) 「太宗嘗幸崇文院觀書，召煜及劉鋹令統觀。謂煜曰：“聞卿在江南好讀書，此簡策多卿之舊物，歸朝後願讀書否？”煜頓首謝。」

29) 「后歲時例隨命婦入宮朝謁。每入宮必留內數日，出對後主輒涕泣罵詈，後主常宛轉避。」(《南唐書》注에 인용)

30) 「太平興國二年，煜自言其貧。」

31) 「此中日夕，只以淚洗面！」(《避暑漫抄》에 인용)

또 〈歲暮題牖〉斷句³²⁾가 전한다.

「만고에 결국 한번의 죽음으로 돌아가니, (萬古到頭歸一死,
취한 고을·물린 땅은 고원이 있네.」 醉鄉葬地有高原.)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가령 太宗이 死藥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後主는 오래 살지는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생명력과 의지가 모두 소실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Ⅲ. 李煜의 詞

後主의 詞는 어느 작품이나 그가 직접 겪은 인생 체험을 활동사진처럼 即物的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그의 문학의 특수성을 따라서 그의 작품을 3개의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려고 한다.

第1時期(1세~28세) : 幼年期로부터 964년(乾德 2년) 大周后의 죽음까지를 한 시기로 한다.

이 시기의 작품은 대략 20여 수에 달하는데 〈浣溪沙〉(앞에 인용함)·〈菩薩蠻〉(“人生愁恨何能免”을 제외한 나머지의 3수)·〈喜遷鶯〉·〈阮郎歸〉·〈玉樓春〉(일명 〈木蘭花〉) 등을 이 시기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後主의 생활은 가장 순조롭고 행복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속하는 작품들의 작품도 또한 「華艷溫靡」한 것이 그 특색이다. 이 작품들의 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大周后와의 艷情을 묘사한 詞가 있다.

〈一斛珠〉³³⁾

「새벽 단장을 막 끝내고,
빨간 입술 연지를 가볍게 바르네.
사람을 향하여 丁香的 알맹이를 살짝 드러내고,
한 곡의 맑은 노래,
잠깐 앵도같은 입술이 터지네.
비단 소매가 술에 젖어버려 붉은 색이 아름답고,
술잔은 깊어도 문득 향기로운 술로 가득차네.
수놓은 침상에 비스듬히 기대니 교태는 건디기 어렵네.
붉은 길을 잘강잘강 씹어,
웃으며 낭군에게 내뱉는다네.」

(曉妝初過,
沈檀輕些兒個.
向人微露丁香顆,
一曲清歌,
暫引櫻桃破.

羅袖裊殘殷色可,
杯深旋浥香醪宛.
繡床斜倚嬌無那,
惺惺紅茸,
笑向檀郎唾.)

32) 《全唐詩》, p. 75.

33) 唐圭璋, 《南唐二主詞彙箋》 p. 6뒤.

둘째, 小周后와의 密會를 묘사한 詞가 있다.

〈菩薩蠻〉³⁴⁾ (3수 중 둘째)

「꽃은 밝고 달은 어둡고 열은 안개가 어리어,
오늘 밤 낭군에게 가기엔 안성마춤,
버선단 신은 채 향기로운 섬돌을 나서는데,
손에는 황금실 신발을 들고 있네.

畫堂의 남쪽 가에서 만나,
출근 님에게 바짝 붙어 떨고 있네.
“저는 나오기가 어렵사오니,
낭군님 마음대로 사랑해 주옵소서.”」

(花明月暗籠輕霧,
今宵好向郎邊去,
剗襪出香階,
手提金縷鞋.

畫堂南畔見,
一向偎人顚.
奴爲出來難,
教君恣意憐.)

셋째, 淸歌妙舞에 耽溺하는 것을 그린 사가 있다.

〈玉樓春〉 (일명 〈木蘭花〉)³⁵⁾

「저녁 화장을 막 끝내니 살결이 눈같이 희고,
봄의 궁전에는 궁녀들이 물고기를 켜듯 열지어 있네.
笙簧·통소를 불기가 끝나니 물과 구름은 한가로운데,
다시 〈霓裳羽衣〉를 탄주하고 노래의 樂章이 끝나네.

봄에 임하여 누가 다시 향기로운 꽃가루를 흩날리는가?
취하여 난간을 치니 감흥이 절절하네.
돌아갈 땐 촛불을 붉게 비추지 말 것이니,
말발굽을 놓으리라. 맑은 밤 달빛 아래에.」

(晚妝初了明肌雪,
春殿嬪娥魚貫列.
笙簫吹斷水雲閒,
重按霓裳歌遍徹.

臨春誰更飄香屑.
醉拍闌干情味切.
歸時休照燭花紅,
待放馬蹄淸夜月.)

넷째, 꽃이 시들고 봄이 가는 세월의 흐름에 대한 아쉬움을 읊은 것이 있다.

〈阮郎歸〉³⁶⁾

「봄바람 물에 불고 해는 산을 머금었는데,
봄이 오니 언제까지나 한가롭네.
낙화는 어지럽고 술은 거나하니,
笙簧 불고 노래하는 醉夢間이라네.

佩玉 소리 잠잠하고,
저녁 화장은 지워졌으니,
누구에 의지하여 푸른 트레머리를 다듬을 것인가?
봄의 경치에 미련이 남아 붉은 얼굴을 애석하며,
황혼에 홀로 난간에 기대네.」

(東風吹水日銜山,
春來長是閒.
落花狼籍酒闌珊,
笙歌醉夢間.

佩聲悄,
晚妝殘.
憑誰整翠鬢.
留連光景惜朱顏.
黃昏獨倚欄)

즐거움을 작품화한다는 것은 슬픔보다 본래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後主는 그의 전부

34) 唐圭璋, 《南唐二主詞集箋》 p. 14뒤.

35) 唐圭璋, 《南唐二主詞集箋》 p. 18뒤.

36) 唐圭璋, 《南唐二主詞集箋》 p. 16뒤.

격한 재질을 가지고 이러한 常例를 깨뜨려 버렸다. 「수놓은 침상에 비스듬히 기대니 교태는 견딜수 없어, 붉은 실을 잘강잘강 씹어, 웃으면서 낭군에게 내뱉는다네.」(繡牀斜凭嬌無那, 爛嚼紅茸, 笑向檀郎唾) 이 詞에서 묘사된 것이 放恣하고 風流스러운 少婦임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畫堂의 남쪽 가에서 만나, 줄곧 님에게 바짝붙어 덜고 있네. “저는 나오기가 어렵사오니, 낭군님 마음대로 사랑해 주옵소서”」(畫堂南畔見, 一餉偎人顚. 奴爲出來難, 教君恣意憐.) 누구라도 그가 묘사하려는 것이 귀엽고 겁많은 소녀임을 알 수 있다. 周氏 姊妹는 실로 後主의 詞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바람에 임하여 누가 다시 향기로운 꽃가루를 휘날리는가? 취하여 난간을 치니 정취가 걸절하네」(臨風誰更飄香屑, 醉拍闌干情味切)는 화려한 가운데 豪邁한 기상이 담겨 있고, 「(봄) 경치에 미련이 남아 흥안을 애석하게 여기네」(留連光景惜朱顏)라든가 「슬프다. 낙화에 바람이 몇지 않네.」(惆悵落花風不定) (〈應天長〉) 등은 후인들에게 영원히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第2時期(964~975, 28세~39세): 大周后의 죽음에서 後主가 汴京으로 포로로서 끌려갈 때까지를 하나의 시기로 묶을 수 있다.

이 시기에 속하는 詞는 약 10수가 있는데, 〈浣溪沙〉(“轉燭飄蓬一夢歸”)・〈謝新恩〉(“櫻花落盡階前月”)・〈虞美人〉(“風回小院庭蕪綠”) 등을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작품도 다음의 네 가지의 특색을 갖고 있다.

첫째, 인생의 無常을 읊은 것이 많다.

〈浣溪沙〉³⁷⁾

「회전하는 등불・훔날리는 썩같이 한 바탕의 꿈으로 돌아가니,	(轉燭飄蓬一夢歸,
옛 자취를 찾고 싶지만 사람이 그가 아님을 슬퍼하네.	欲尋陳跡悵人非,
하늘은 염원으로 하여금 몸과 어긋나게 하네.	天教心願與身違.
달을 기다리는 못과 누대, 부질없이 흐르는 물,	待月池臺空逝水,
꽃에 가려져 있는 누각, 한가롭게 기우는 햇살.	蔭花樓閣謾斜暉
오르고 입할 때는 아깝지도 않네 다시 옷을 적시는 것을.」	登臨不愜更沾衣.)

둘째, 孤獨과 沈默을 읊은 것이 많다.

「달없이 홀로 서쪽 누각에 오르네.」	(無言獨上西樓)
——〈相見歡〉 ³⁸⁾ ——	
「난간에 기대어 반 나절이나 홀로 말이 없네.」	(憑闌半日獨無言)
——〈虞美人〉 ³⁹⁾ ——	
「대문의 골목은 호젓하고 사람이 사라진 후,	(門巷寂寥人去後,

37) 唐圭璋, 《南唐二主詞集箋》 p. 28 앞.

38) 唐圭璋, 《南唐二主詞集箋》 p. 24 뒤.

39) 唐圭璋, 《南唐二主詞集箋》 p. 18 앞.

40) 唐圭璋, 《南唐二主詞集箋》 p. 8 앞.

내긴 풀이 회미한 것을 바라보네.]

望殘煙草低迷.)

——〈臨江仙〉⁴⁰⁾——

셋째, 가을 밤의 처량한 정경을 읊은 것도 많다.

「가을 바람이 세찬데,

(秋風多,

비가 서로 어울리네.

雨相和,

탈 너머엔芭蕉가 두세 그루,

簾外芭蕉兩三窠,

밤이 긴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하겠는가?」

夜長人奈何.)

——〈長相思〉(後片)⁴¹⁾——

넷째, 悼亡의 슬픈 감회를 읊은 것도 가끔 있다.

〈謝新恩〉⁴²⁾ (6수 중 셋째)

「앵두꽃이 다 떨어지고 섬돌 앞엔 달이 있는데,

櫻花落盡階前月,

상아 침상에 시름하며 薔籠에 기대네.

象妝愁倚薔籠.

멀리 지난 해 오늘,

還是去年今日

한은 또 같았네.

恨還同.

두 가닥 트레머리는 매만지지도 않고 구름같은 머리도 야위었는데,

雙鬟不整雲憔悴,

눈물은 붉은 抹胸을 적시네.

淚沾紅抹胸

어느 곳인가, 相思의 괴로움은,

何處相思苦,

길 창에 취하여 꿈꾸는 가운데라네.]

紗窗醉夢中.)

위에서 말한 네 가지의 특색은 「暗澹・蕭索」한 작품을 이루어 첫 시기의 「華艷・溫馨」한 작품을 대신하였다. 後主의 인생 태도가 낙관적인 데서 비관적인 데로 변신한 것이다. 비록 봄의 꽃과 가을 달・情歌・妙舞는 옛날과 다름이 없다고 하더라도, 「風情이 점차 늙어가니 봄을 보기가 부끄럽네」(風情漸老見春羞)(〈楊柳枝〉)⁴³⁾, 「귀밑머리에 가득한 맑은 서리와 남아 있는 눈에, 생각을 전디기 어렵네」(滿鬟情霜殘雪・思難任) 그의 정신과 육체는 모두 노쇠해 버린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그는 침묵 속에 인생의 無常을 느꼈고 깊은 가을 밤에 孤獨에 젖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미 죽은 아내와 자식을 추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름과 고독에 싸인 생활 환경은 그에게 기금까지 없었던 인생의 비애・고뇌에 대한 심각하고 절실한 이해를 갖게 했다.

第3時期(975~978, 39세~42세): 汴京의 幽廢 생활과 被害를 당하여 죽기까지를 마지막 한 시기로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비록 짧은 3~4년간에 지나지 않고 또 남아 있는 작품도 단지 10수 정도이지만, 後主가 이룩한 최고의 걸작들(〈浪淘沙令〉・〈虞美人〉등)이 모두 이 때 탄생되었다.

이 몇 년 동안에 그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전디기 어려운辛苦와 侮辱을 두루

41) 唐圭璋, 《南唐二主詞集箋》p. 8 앞.

42) 唐圭璋, 《南唐二主詞集箋》p. 20 앞.

43) 唐圭璋, 《南唐二主詞集箋》p. 25 뒤.

당했다. 이辛苦와侮辱은 이제까지 꿈과도 같았던 그의 지난날이 하나하나 그의 꿈 속에 재현되게 하고, 그것은 또한 그의 모든 세계에서 빛과 향기를 빼앗아 가버렸다. 꿈 속에서 재현된 호화로웠던 지난날은 눈 앞에서 그가 당하는 불행을 상대적으로 천 배만 배로 심각하게 느끼게 하였고, 동시에 그 불행은 지난날의 세계를 더욱 절실하게 추억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과거와 현재가 자아내는 고민은 그에게 몇 수에 지나지는 않지만 「피로 아로새긴」絶唱들을 낳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들은 모두 哀怨・淒絶한 풍격을 지녔으며, 그것이 읊은 대상은 고독이나 꿈이 아니면 인생에 대한 절대 뿐이었다.

〈浪淘沙令〉⁴⁴⁾

「지난 일은 오직 슬픔 뿐,
경치를 대하여도 잊애기 어렵네.
가을 바람 부는 정원에는 이끼가 섬돌을 침범하고,
한 다발의 주렴은 한가롭게 말아올리지도 않으니,
종일토록 누가 올것인가?

金劍은 이미 묻혀버렸고,
장한 기운도 노쇠해 버렸네.
저녁은 차고 하늘은 고요하며 달빛은 피었지만,
생각하네 玉樓・瑤殿의 그림자가,
부질없이 秦淮河를 비추고 있음을.»

(往事只堪哀,
對景難排。
秋風庭院蘇侵階,
一行珠簾閑不捲。
終日誰來。

金劍已沈埋,
壯氣蒿萊。
晚涼天靜月華開
想得玉樓瑤殿影,
空照秦淮。)

〈子夜歌〉(일명〈菩薩蠻〉)⁴⁵⁾

「인생의 시름과 한을 어떻게 면하겠는가?
넋을 잃고 홀로 나만 감정이 무한하네.
고국을 꿈에선 다시 돌아갔건만,
깨어나선 두 줄기 눈물을 흘리네.

높은 누각엔 누구와 올랐던가?
언제까지나 기억하네, 가을 개인 날 바라보던 것을.
지난 일은 이미 헛것이 되어,
또 한 바탕의 꿈 속과도 같네.»

(人生愁恨何能免?
銷魂獨我情何限。
故國夢重歸。
覺來雙淚垂。

高樓誰與上,
長記秋晴望。
往事已成空。
還如一夢中。)

이 사들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고독한 감회를 그린 것이다.
다음의 작품들은 「꿈」을 노래한 것이다.

〈浪淘令〉⁴⁶⁾

「발 너머엔 비가 부슬부슬,
봄 기운이 다하러 하네.

(簾外雨潺潺,
春意將闌。

44) 唐圭璋, 《南唐二主詞集箋》p. 75.

45) 唐圭璋, 《南唐二主詞集箋》p. 75.

46) 唐圭璋, 《南唐二主詞集箋》p. 22.

비단 이불에 새벽녘 추위를 견디지 못하네.
꿈 속에선 내가 나그네인 줄도 모르고,
즐근 환락에 빠져 있었네.

홀로 난간에 기대지 말 것이니,
무한한 강산,
이별은 쉽지만 만나기는 어렵다네.
흐르는 물·지는 꽃·봄이 가버리니,
천상인가, 인간 세상인가.」

羅衾不耐五更寒。
夢裏不知身是客，
一飮貪歡。

獨自莫凭闌。
無限關山。
別時容易見時難。
流水落花春去也，
天上人間。）

〈望江南〉⁽⁴⁷⁾

「얼마나 많은 한이런가.
어젯 밤 꿈 속에선.
또 옛날 上苑에 놀던 때와 같았네,
수레는 흐르는 물과 같고 말은 용과 같은데,
꽃과 달 한창 봄바람이었네.」

(多少恨，
昨夜夢魂中。
還似舊時遊上苑，
車如流水馬如龍，
花月正春風。)

다음과 같은 사는 작자가 인생에 대하여 원태를 느끼지 않았다면 결코 써낼 수 없었을 것이다.

〈虞美人〉⁽⁴⁸⁾

「봄 꽃·가을 달은 언제나 다하리,
지난 일은 얼마이던가.
작은 누각에 간 밤엔 또 봄 바람,
고향을 향해 고개를 차마 못 돌리니,
달이 밝아서.

곰게 새긴 난간·옥돌 층계는 그대로 있거니와,
다만 변한 것은 붉은 얼굴 뿐.
그대에게 묻네. 시름은 모두 얼마나 되는가,
흙사 온 강의 봄 물이,
동쪽으로 흐르는 만큼이라네.」

(春花秋月何時了。
往事知多少。
小樓昨夜又東風。
故國不堪回首。
月明中。

雕闌玉砌依然在。
只是朱顏改。
問君都有幾多愁。
恰似一江春水。
向東流。)

이 「피로 아로새겨진」 그의 사들은 누구나 느끼면서도 좀처럼 표현해내지 못하는 인생의 비애와 허무를 완벽하게 묘사해 낸 絶唱들이다.

淸의 王國維는 말하였다.

「後主의 사는 강달 이른바 피로 쓴 것이다. 宋 道君皇帝(徽宗)의 〈燕山亭〉 사도 또한 대략 비슷하다. 그러나 도군황제는 身世의 감상을 스스로 말한 데 지나지 않지만, 後主는 엄연히 釋迦·예수와 같은 인류의 죄악을 등에 지고 있다는 뜻이 있으므로 그 규모가 본래부터 같지 않다.」⁽⁴⁹⁾

47) 唐圭璋, 《南唐二主詞集箋》 p. 9 앞.

48) 唐圭璋, 《南唐二主詞集箋》 p. 4 뒤.

49) 「後主之詞, 眞所謂以血書者也. 宋道君皇帝〈燕山亭〉詞亦略似之. 然道君不過自道身世之感, 後主則儼有釋迦基督擔荷人類罪惡之意, 其大小固不同矣.」, 王國維, 《校注人間詞話》(臺北: 臺灣開明書店, 1966), pp. 9~10.

왕국유가 「엄연히 석가·예수의 인류의 죄악을 등에 지고 있다는 뜻이 있다」고 한 것은 비유가 좀 지나친 점이 있지만, 우리가 만약 「인류의 죄악을 등에 지고 있다」는 것이 봉건 시대의 士大夫들이 비애를 가리킨 것이라고 한다면 왕국유의 설은 사실 가장 적절한 평이라고 할 수 있다.

Ⅳ. 결 론

이제 우리는 李煜의 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위에서 논한 3기는 사실 李煜의 인생에 대한 3가지의 태도를 대표한다.

제1기의 그의 인생에 대한 태도는 眷戀으로서 그는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2기의 그의 태도는 無常感이고 제3기의 태도는 厭世이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물론 약자의 태도이지만, 그는 이러한 약점을 전체적이고 충실하게 표현해 낼 수 있었고 또한 그렇게 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 우리는 또 李煜이 詞史上 뛰어난 기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대에 속하는 작가들, 예를 들면 韋莊(836?~910?)의 「늙기 전에 고향에 가지 말 것이, 고향에 돌아가면 애를 끊으리」(未老莫還鄉, 還鄉須斷腸)(《菩薩蠻》(一))⁵⁰⁾라든가 「술을 만나면 감잔 웃을 일이니, 인생은 얼마이겠는가?」(遇酒且哈哈, 人生能幾何)(《菩薩蠻》(四))⁵¹⁾ 혹은 馮延巳의 「차가운 붉은 꽃 복사꽃 조각이 흩날리니, 푸른 봄 기운이 다하려고 하네.」(冷紅飄起桃花片, 青春意緒闌珊)(《臨江仙》)⁵²⁾라든가 「날마다 꽃 앞에서 늘 술병이 들지만, 거울 속의 붉은 얼굴이 야위는 것을 사양치 않네.」(日日花前常病酒, 不辭鏡裏朱顏瘦.)(《鵲踏枝》)⁵³⁾라고 한 것은 침통하고 심각하지만, 이것들을 李煜의 〈浪淘沙令〉 등 여러 사작품과 비교한다면 결국 왕국유가 말한 바와 같이 「그 규모가 본래부터 같기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0) 劉金城, 《韋莊詞校注》(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 p. 19.

51) 위의 책, p. 20.

52) 馮延巳, 《重校陽春集》(臺北: 世界書局, 1970), p. 8.

53) 위의 책, p. 3